2019-10-15 CPI Bunker 이윤규

지소미아

*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11월 22일에 폐기될 예정임.
*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소원한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일 양국은 정보 분석에서 서로 다른 분석을 냄.
*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기를 희망하고 있고,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함.
* 한-일 양국의 감정적 대치는 소강상태를 맞은 것으로 보이며, 22일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확정됨. 해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F-35A vs F-35B 청와대 지시 논란

*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B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트 전투기를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힘.
* 우리 군이 현재 도입한 F-35는 공군형 모델인 A형임. B형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무장능력, 작전반경, 기동력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함.
* 가격은 F-35B가 30-40% 더 비쌈. 하지만 항공모함에서 활용 가능함. 우리 군의 활동 반경, 전략을 나타낼 수 있음.
* 군의 무기 구매는 육, 해, 공군의 요청과 함동참모본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 굴레임. 규칙 상 청와대는 결정선상에 없음.
* 백승주 의원은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 구매 계획을 특정 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 구매 계획을 논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됨. 미국이 한국 측의 분담금을 5배로 증액 요구했다고 전해짐.
* 해리스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연내 타결’과 ‘중간 지점의 절충안’을 주장함. (10차 협정에 따르면, 11차 협정이 올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양측의 합의 하에 10차 협정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해석됨)
* “내가 아는 모든 정보는 대부분 신문에서 얻는다”라고 언급함.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함.
* 지소미아 연장, 미국 무기 구매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